

# 고전시가의 해상도

우리는 고전시가를 독해할 때, 어휘가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모든 단어를 알아두고 해석해내서 의미를 따내면 안 풀릴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공부해도 고전시가에서 모르는 어휘가 분명 나옵니다.

그리고 시간적 압박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문학에서 시간을 단축해내야 합니다. 소설 파트는 시간이 오래걸리고, 현대시는 선지의 판단에서 시간이 소모됩니다. 따라서 고전시가에서 단축을 해야합니다.

이때, 지문의 모든 글자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다 해석을 하며 읽고 가는 전략이 과연 유리할까요?

저는 그러한 전략이 압도적인 우월전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휘도 전부 알고 있고 시간도 많으면 좋겠지만, 실전에서는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할지 지금부터 알아보시다.

고전시가를 독해할 때, 지문의 **해상도의 높낮이**를 조절해가며 읽는 방법입니다.

어휘를 알긴하되 범주화해두어서 이게 자연인지 속세인지, 자연물인지, 계절어인지 정도만 파악을 해두는겁니다. 그리고 그걸 사용해 지문에서의 완급조절을 해나가면됩니다.

말로만 하면 쉬울테니 23년도 9월 모의고사 고전시가 셋트를 풀어보고나서 같이 봅시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결국 어휘를 제대로 공부해두어야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이 방법론은 실전에서 어떻게든 풀어내기위한 몸부림입니다.



(가)

이 중에 시름없으니 어부(漁父)의 생애로다  
 일엽편주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아는가  
 <제1수>

┌ 곱어보면 천심 녹수 돌아보니 만첩 청산  
 [A] 십장 홍진(十丈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가  
 └ 강호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여라  
 <제2수>

청하(靑荷)에 밥을 싸고 녹류(綠柳)에 고기 꿰어  
 노적 화총(蘆荻花叢)에 배 매어 두고  
 일반 청의미(一般淸意味)를 어느 분이 아실까  
 <제3수>

㉠ 산두(山頭)에 한운(閑雲) 일고 수중(水中)에 백구(白鷗) 난다

무심코 다정한 것 이 두 것이로다  
 ㉡ 일생에 시름을 잊고 너를 좇아 놀리라  
 <제4수>  
 - 이현보, 「어부단가」 -

(나)

때마침 부는 추풍(秋風) 반갑게도 보이도다  
 말술이 다나 쓰나 술병 메고 벗을 불러  
 언덕 너머 어촌에 내 놀이 가자꾸나  
 흰 두건을 걸쳐 쓰고 소정(小艇)을 타고 오니  
 ㉢ 바람에 떨어진 갈대꽃 갠 하늘에 눈이 되어  
 석양에 높이 날아 어지러이 뿌리는데  
 같앞에 닷 내리고 그물로  
 잔잔한 강물 속 자린은순(紫鱗銀脣)\* 수없이 잡아내  
 어

연잎에 담은 회와 향아리에 채운 술을  
 실컷 먹은 후에  
 태기 넓은 돌에 높이 베고 누웠으니  
 희황천지(羲皇天地)\*를 오늘 다시 보는구나  
 잠시 잠들어 뱃노래에 깨어 보니  
 ┌ 추월(秋月)이 만강(滿江)하여 밤빛을 잃었거늘  
 반쯤 취해 시 읊으며 배 위로 건너오니  
 [B] 강물 아래 잠긴 달은 또 어인 달인 게오  
 └ 달 위에 배를 타고 달 아래 앉았으니  
 문득 의심은 월궁(月宮)에 올랐는 듯  
 ┌ 물외(物外)의 기이한 경관 넘치도록 보이도다  
 청경(淸景)을 다투면 내 분에 두라마는

즐거도 말리는 이 없으니 나만 둔가 여기노라  
 놀기를 탐하여 돌아갈 줄 잊었도다  
 ㉣ 아이야 닷 들어라 만조(晩潮)에 띄워 가자  
 푸른 물풀 위로 강풍(江風)이 짐짓 일어  
 귀범(歸帆)을 재촉하는 듯  
 아득하던 앞산이 뒷산처럼 보이도다  
 잠깐 사이 날개 돌아 연잎배 탄 신선된 듯  
 연파(煙波)를 헤치고 월중(月中)에 돌아오니  
 ㉤ 동파(東坡) 적벽유(赤壁遊)\*인들 이내 흥(興)에  
 미치겠는가  
 강호 흥미(興味)는 나만 둔가 여기노라  
 - 박인로, 「소유정가」 -

\* 자린은순 : 물고기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말.  
 \* 희황천지 : 복희씨(伏羲氏) 때의 태평스러운 세상.  
 \* 동파 적벽유 : 중국 송나라 때 소식(蘇軾)이 적벽에서 했던 뱃놀이.

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대구를 통해 자연 경물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한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은 자연 경물을 ‘너’로 지칭하여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들과 동화하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 ③ ㉢은 자연 경물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물가의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 ④ ㉣은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아이’가 해야 할 행동을 제시함으로써 자연 경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 ⑤ ㉤은 유사한 놀이를 즐겼던 과거 인물과 비교함으로써 화자의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다.

2.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화자는 달을 절대적 존재로 인식하고 강호 자연에서 ‘무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원하고 있다.
- ② [A]에서 화자는 달에 인격을 부여하여 ‘녹수’와 ‘청산’으로 둘러싸인 강호 자연의 가을 달밤 정경을 묘사하고 있다.
- ③ [B]에서 화자는 하늘의 달과 강물에 비친 달 사이에 놓임으로써 ‘월궁’에 오른 듯한 신비로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④ [B]에서 화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양을 달리 하는 달의 특성을 활용하여 계절의 변화를 다채롭게 나타내고 있다.
- ⑤ [A]와 [B]에서 강호 자연에 은거한 화자는 달을 대화 상대이면서 동시에 위안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3.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어부’는 정치 현실과 거리를 둔 은자로 형상화된다. 이때 ‘어부 형상’은 어부 관련 소재, 행위, 정서 등의 어부 모티프와 연관하여 작품별로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면서 다양한 변주를 보인다. (가)는 어부와 관련된 상황의 일부를 초점화하여 유유자적한 삶을 사는 어부를, (나)는 어부와 관련된 여러 상황을 이어 가며 흥취 있는 삶을 사는 어부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① (가)의 ‘어부’는 ‘십장 흥진’으로 표현된 정치 현실에서 벗어나 뱃놀이를 즐기며 ‘인세’의 근심과 시름을 다 잊고 한가로움을 추구하려고 하는군.
- ② (나)의 ‘추풍’은 뱃놀이의 흥취를 북돋우는 자연 현상이고, ‘강풍’은 흥취의 대상을 강에서 산으로 옮겨 가는 자연 현상이라 볼 수 있군.
- ③ (가)의 ‘일엽편주’와 (나)의 ‘소정’은 화자가 소박한 뱃놀이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어부 형상 관련 소재라고 할 수 있군.
- ④ (가)의 ‘녹류에 고기 께어’에는 어부의 삶과 관련된 일부 행위를 통해 유유자적한 삶이, (나)의 ‘그물로, 수없이 잡아내어’, ‘실컷 먹은’에는 뱃놀이의 여러 상황들이 연결되어 흥취를 즐기는 삶이 나타나고 있군.
- ⑤ (가)의 ‘어부’는 강호 자연의 삶 속에서 홀로 자족감을 표출하고 있고, (나)의 어부는 벗들과 함께한 흥겨운 뱃놀이를 통해 만족감을 표출하고 있군.





# 지문해설

(가)

이 중에 시름없으니 어부(漁父)의 생애로다  
일엽편주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아는가

<제1수>

## 고해상도

이 중에 시름없으니 어부의 삶이로다  
한 조각 작은 배를 넓은 바다에 띄워 두고  
세상일 다 잊었거니 세월 가는 줄을 아는가

## 저해상도

걱정X 어부의 삶 좋다. (in자연)  
몰루  
세상 싫데. (to자연)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일엽편주'와 '만경파'에 대한 어휘를 몰랐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걱정이 없고 어부의 삶을 살고 있기에 "in자연(어촌)→to자연"의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엽편주? 만경파? 몰라도 일단 '띄워두고'를 보고 '어촌에서 띄우는게 배겠지 드림통이겠누~' 하고 판단해주면됩니다.  
인세를 잊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속세를 의미하는 어휘이지만 몰랐다고 가정해봅시다.  
자연에 살면서 어디를 잊었다고 하면 당연히 자연의 반대 공간인 속세였겠습니다.  
물론 어휘를 학습해두고 인간 세상을 잊었다. 이렇게 해석하는게 정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1. 어휘를 모른다. 2. 시간이 없다 라는 상황을 전제하고 가고있습니다.  
1수에서는 해상도를 높여서 화자의 상황을 뜯어내고 나머지 부분은 해상도를 낮춰갑시다.

굽어보면 천심 녹수 돌아보니 만첩 청산  
십장 홍진(十丈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가  
강호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여라

<제2수>

## 고해상도

굽어보니 깊고 푸른 물, 돌아보니 겹겹의 산.  
열 길의 붉은 먼지 얼마나 가렸는가  
강호에 달 밝았으니 더욱 무심하여라

## 저해상도

저기보면 물, 돌아보면 산  
속세를 가렸다고 합니다.  
달뜨면 욕심이 없네요

물, 산 뭐 자연이니까 보이는 자연물이겠죠? 그게 속세를 가렸다고 합니다. (홍진은 공부하셈)



청하(靑荷)에 밥을 싸고 녹류(綠柳)에 고기 꿰어  
노적 화총(蘆荻花叢)에 배 매어 두고  
일반 청의미(一般淸意味)를 어느 분이 아실까

<제3수>

### 고해상도

연잎에 밥을 싸고 버들가지 물고기 꿰어  
갈대꽃 우거진 곳에 배를 매어 두고  
소소한 이 맑은 맛을 어느 누가 알 것인가

### 저해상도

위에 밥싸고 위에 고기를 꿰었다네 뭔데? 소박한 음식인가?  
위에 배 매어뒀데 노적 화총이 뭔데  
뭔 의미를 누가 아나는데?

어휘를 알면 좋지만 몰랐다면 이정도만 읽어두고 선지를 보며 비벼서, 뭉개서라도 봅시다.

㉠ 산두(山頭)에 한운(閑雲) 일고 수중(水中)에 백구(白鷗) 난다  
무심코 다정한 것 이 두 것이로다  
㉡ 일생에 시름을 잊고 너를 좇아 놀리라

<제4수>

- 이현보, 「어부단가」 -

### 고해상도

산에는 구름이 한가롭게 일어나고 물에는 갈매기가 날아간다  
욕심 없고 다정한 게 이 두 가지로구나  
한평생 근심 잊고 너희와 놀리라

### 저해상도

산에 구름, 물위에 흰 새  
이 두 개가 다정하데  
시름을 잊고 자연물을 추구하겠데 (to자연)

분명 어휘를 다 외워두고 풀어가는데 맞지만,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 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결국 자연친화의 주제임을 파악하고 패턴따라 같같이 분류해서 상황과 지향을 결정지은 후 선지를 보며 할 것을 하면됩니다.



(나) 해석본이기에 저해상도로...

때마침 부는 추풍(秋風) 반갑게도 보이도다  
말술이 다나 쓰나 술병 메고 벗을 불러  
언덕 너머 어촌에 내 놀이 가자꾸나

해석본을 준 듯 합니다. 바로바로 갑시다.

계절적 배경은 가을이고 놀러가는데 술 나왔으니  
시서금주 → 풍류적 태도!  
어촌이니 'in자연 to자연'

흰 두건을 걸쳐 쓰고 소정(小艇)을 타고 오니  
㉠ 바람에 떨어진 갈대꽃 갠 하늘에 눈이 되어  
석양에 높이 날아 어지러이 뿌리는데

소정? 물으겠음 근데 타는건가봄  
꽃이 눈갈데, 멋지겠네 → 예찬적 태도

갈잎에 달 내리고 그물로  
잔잔한 강물 속 자린은순(紫鱗銀脣)\* 수없이 잡아내어  
연잎에 담은 회와 향아리에 채운 술을  
실컷 먹은 후에  
태기 넓은 돌에 높이 베고 누웠으니  
희황천지(羲皇天地)\*를 오늘 다시 보는구나

달내리고 그물? 소정이 배야?  
물고기 잡아서 먹고 노는데  
지금이 태평성대라고하네 → 자족감

잠시 잠들어 뱃노래에 깨어 보니  
추월(秋月)이 만강(滿江)하여 밤빛을 잃었거늘  
반쯤 취해 시 읊으며 배 위로 건너오니  
강물 아래 잠긴 달은 또 어인 달인 게오

자고일어나니 밤이 되었다. → 시간의 흐름  
취해서 배타고 노나보네 소정 배 맞네  
강물 아래에 달이 잠겼다는건 달이 반사되서 보이는 거겠지

달 위에 배를 타고 달 아래 앉았으니  
문득 의심은 월궁(月宮)에 올랐는 듯  
물외(物外)의 기이한 경관 넘치도록 보이도다

달밤에 배타고 노는구나 신났네 (풍류)  
뭐 경관도 예찬중이시고.. (예찬)



청경(淸景)을 다투면 내 분에 두라마는  
즐거도 말리는 이 없으니 나만 둔가 여기노라

청경이 뭔데? (맑은 경치입니다.) 뭔진 몰라도 이걸 두고 싸우면 난 가질수가 없는데.  
자연을 혼자 즐기고 있어서 좋은가보네

놀기를 탐하여 돌아갈 줄 잊었도다  
㉔ 아이야 달 들어라 만조(晩潮)에 띄워 가자

놀다가 이제 집감

푸른 물풀 위로 강풍(江風)이 짐짓 일어  
귀범(歸帆)을 재촉하는 듯  
아득하던 앞산이 뒷산처럼 보이도다

물풀위에 바람이 불었고  
귀범? 이게 뭐임? (돛단배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공간의 이동도 있네

잠깐 사이 날개 돌아 연잎배 탄 신선된 듯  
연파(烟波)를 헤치고 월중(月中)에 돌아오니

신선같이시덴다 → 자족감  
돌아왔데 연파 물루 알빠노(안개 물결이라는 뜻입니다.)

㉕ 동파(東坡) 적벽유(赤壁遊)\*인들 이내 흥(興)에 미치겠는가  
강호 흥미(興味)는 나만 둔가 여기노라

- 박인로, 「소유정가」 -

옛 인물의 벵늘이가 내 흥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니까 자족감이네  
강호? 자연이겠고 자연의 흥미는 내꺼래 ○○





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 : ④

① ㉠은 대구를 통해 자연 경물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한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산두(山頭)에 한운(閑雲) 일고 수중(水中)에 백구(白鷗) 난다' 유사한 통사적 구조를 통해 자연의 한가로움을 강조하고 있다.

② ㉡은 자연 경물을 '너'로 지칭하여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들과 동화하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자연물을 '너'라고 지칭한 순간 의인화이다. '일생에 시름을 잊고 너를 좇아 놀리라' 라는 구절을 통해 자연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화는 허용가능하다.

③ ㉢은 자연 경물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물가의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꽃을 눈에 빚대어 동적인 이미지로 드러내고 있다. 시각적 이미지이므로 감각적이다.

④ ㉣은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아이'가 해야 할 행동을 제시함으로써 자연 경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가자'를 통해 명령형 어미를 확인했다. 그런데 인식의 변화라면 앞에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는 것 같은 전환이 있어야한다. 하지만 화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친화적 태도를 드러낸다.

+명령형 어조라면 왠지 무언가 바꾸라는 의도를 가지고 했을 것이라는 통념에 뉘시를 걸어드었다.

⑤ ㉤은 유사한 놀이를 즐겼던 과거 인물과 비교함으로써 화자의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다.

고사인용을 통해 자족감과 자긍심을 드러냈다.

2.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 : ③

① [A]에서 화자는 달을 절대적 존재로 인식하고 강호 자연에서 '무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절대적 존재라면 축원의 대상으로 봤다는 것인데 그저 여기서는 무심함을 드러내는 대상일 뿐이다. 그런데 애초에 '지원'이라는 행동이 없었다.

+정음사의 달 이미지로 뉘시를 걸었다.

② [A]에서 화자는 달에 인격을 부여하여 '녹수'와 '청산'으로 둘러싸인 강호 자연의 가을 달밤 정경을 묘사하고 있다.

무심이라는 단어를 보고 달에 인격을 부여했다고 판단하기 좋았다. 하지만 무심하다는 것은 화자의 정서일 뿐이다.

달이 무심하다는 것이 아니다. 대상이 정서를 느낀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화자/상황/대상/정서를 서로 바꿔치기하는 문제가 자주 나온다.

#기출 Ref

2406 오규원, 「봄」에서 대상인 담벽을 상황으로 바꿔치기를 했다. 2509 문태준, 「살얼음 아래 같은 데 2 - 생가(生家)」에서도 대상(물고기) 중 대상<sup>1</sup>(어린 것), 대상<sup>2</sup>(어미)를 바꿔치기해서 선지를 냈다.

③ [B]에서 화자는 하늘의 달과 강물에 비친 달 사이에 놓임으로써 '월궁'에 오른 듯한 신비로움을 표현하고 있다.

'물 아래 잠긴 달은 또 어인 달인 게오'에서 하늘의 달과 강물에 비친 달을 확인하고 '문득 의심은 월궁(月宮)에 올랐는 듯'을 통해 월궁에 오른 듯한함을 확인할 수 있다.

④ [B]에서 화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양을 달리 하는 달의 특성을 활용하여 계절의 변화를 다채롭게 나타내고 있다.

달빛이 만개함은 파악 가능하나 모양의 변화는 드러나있지 않다.

계절적 배경은 가을만 제시되어있기에 계절의 변화에서 확실히 굳자.

⑤ [A]와 [B]에서 강호 자연에 은거한 화자는 달을 대화 상대이면서 동시에 위안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A]와 [B]에서 화자는 달에게 말을 건넌적이 없다. 심지어 '위안'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상황에서 무언가 한 줄기 빛이 되어주는 그런 존재라는 뜻인데, (가)와 (나) 둘 다 풍류를 즐기며 자족,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 애초에 부정적인 상황도 아니다.



3.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답 : ②

선 <보기>가 유리하다. 작품의 배경에 대한 해설이 (가)와 (나)에 일대일 대응되어있다.

— < 보 기 > —

‘어부’는 정치 현실과 거리를 둔 은자로 형상화된다. 이때 ‘어부 형상’은 어부 관련 소재, 행위, 정서 등의 어부 모티프와 연관하여 작품별로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면서 다양한 변주를 보인다. (가)는 어부와 관련된 상황의 일부를 초점화하여 유유자적한 삶을 사는 어부를, (나)는 어부와 관련된 여러 상황을 이어 가며 흥취 있는 삶을 사는 어부를 형상화하고 있다.

(가) 어부(in자연), 유유자적한 삶(한가로움=to자연)

(나) 어부와 관련된 여러 상황을 이어 가며(장면별 묘사 파악), 흥취 있는 삶(자족감=to자연)

① (가)의 ‘어부’는 ‘십장 흥진’으로 표현된 정치 현실에서 벗어나 뱃놀이를 즐기며 ‘인세’의 근심과 시름을 다 잊고 한가로움을 추구하려고 하는군.

<보기>에 의하면 속세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유유자적한 삶을 즐기고 있다.

② (나)의 ‘추풍’은 뱃놀이의 흥취를 북돋우는 자연 현상이고, ‘강풍’은 흥취의 대상을 강에서 산으로 옮겨가는 자연 현상이라 볼 수 있군.

‘강풍’은 배를 이동시킨 바람이다. ‘잠깐 사이 날개 돌아 연잎배 탄 신선된 듯’을 통해 화자는 여전히 강에서 흥취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가)의 ‘일엽편주’와 (나)의 ‘소정’은 화자가 소박한 뱃놀이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어부 형상 관련 소재라고 할 수 있군.

(가)와 (나) 둘 다 배를 의미하는 어휘로 일엽편주와 소정을 사용했다.

+일엽편주라는 어휘를 몰라도 현재 화자의 상황(어촌에서 뱃놀이를 함)과 ‘띄워두고’라는 말을 통해 배라는 뜻을 추론할 수 있었다.

④ (가)의 ‘녹류에 고기 꿰어’에는 어부의 삶과 관련된 일부 행위를 통해 유유자적한 삶이, (나)의 ‘그물로, ‘수없이 잡아내어’, ‘실컷 먹은’에는 뱃놀이의 여러 상황들이 연결되어 흥취를 즐기는 삶이 나타나고 있군.

(가) 고기를 꿰어 두는 것은 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과 연관되어있다고 볼 수 있고 <보기>에 의해 어부=유유자적한 삶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나) <보기>에서 여러 상황을 이어가며 흥취를 드러냈다고 했고 ‘그물로’, ‘수없이 잡아내어’, ‘실컷 먹은’은 이에 해당한다.

⑤ (가)의 ‘어부’는 강호 자연의 삶 속에서 홀로 자족감을 표출하고 있고, (나)의 어부는 벗들과 함께한 흥겨운 뱃놀이를 통해 만족감을 표출하고 있군.

(가) ‘산두(山頭)에 한운(閑雲) 일고 수중(水中)에 백구(白鷗) 난다.’와 ‘일생에 시름을 잊고 너를 좇아 놀리라’를 보았을 때, 화자는 자연을 벗 삼아 유유자적한 삶을 즐기고 있다. 적절하다.

(나) ‘술병 메고 벗을 불러 언덕 너머 어촌에 내 놀이 가자꾸나’를 보아 적절하다.

